



▷시인인 합장한 마음을 풀지 않기 위해 늘 집안 법당에서 글을 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시 한 줄로 마음을 달래며 지탱해 온 지난 세월들은 결국 당신 뜻이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시간, 저리도 잠얼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왜 몰랐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한 송이 꽃을 바칩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던 꽃봉오리 이제 꽃을 피워 당신께 바칩니다.

경상을 시와 더불어 산 불자시인 여천(如泉) 람승만(64). 자신의 삶이나 다름없는 시, 그리고 시로 채운 세월 모두를 부처님께 올렸다. 타오르는 향과 같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두렵고 검은 안경테, 백발이 성성한 험물어진 머리. 지팡이를 짚고 가까스로 몸을 움직일 때야 비로소 그가 반쪽 인간임을 안다. 그렇게 지내 온 지 어느새 19년. 올다가 지쳐 눈물마저 말라 버렸을 긴긴 세월, 그에게는 아직 흠뻑 눈물이 남아있다. 그에게 시는 무엇이며 시를 쓴 40여년의 세월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올해로 시를 쓴 지 꼭 42년. 하지만 람승만은 2년을 빼고 싶다. 시작(詩作) 40년을 기념한 시문집을 열마진 냈기 때문이다. 시작 한 권 낼 형편이 못 돼 미루고 미루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신의 열 두 번째 시집 《정토의 꽃》을 상

재하게 됐다. 그가 부처님께 바친 꽃은 다름이 아닌 《정토의 꽃》이었다.

《정토의 꽃》 일사구연 그의 눈물이 가득 배어 있다. 고통과 회한의 19년 세월 갈목갈목이 걸어 놓았던 좌절과 희망, 바늘귀를 빠져나온 기느 다란 한숨을 달래며 오늘이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노라”고 말해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56년 《문학예술》 12월호에 시 ‘술’으로 등단. 문단에 발을 들여 놓으며 외유적인 활동을 펼치 온 람승만은 80년 1월 한국잡지협회 이사회에 참석 후 귀가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1년반동안의 부양생활,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다. 동국대 국문과 학부시절 불법을 만나기는 했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다. 죽을 같은 몸살, 그는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한다. 병상을 덮고 일어난 자리에 ‘불법’을 심었다.

반신불수의 몸은 더욱 철저히 부처님과 시에 기대기 시작했다. 붙어진 한쪽 팔과 다리를 붙여서 인간 생활의 법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경전 한 줄에 시 한 줄, 하루하루가 그렇게 채워졌다. 온종일 독경만 하기도 하고 새벽까지 부처님전에 곁에 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시 쓸때와 예불 올릴때 좌절이 용기로 변해요”

산문박의 禪

詩作 40년 람승만 시인

도 두터웠던 입장을 조금씩 녹여나갔다. 육신의 고통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보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 그 그리움을 불교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관음의 미소를 보았다.

한 새벽 꿈길에/이슬 한 방울 굴리시며/관음의 미소로 피어나신다/연꽃 한 송이...(중략) 지극하신 자비의/지순한 연꽃 한 송이시여/이리도 뜨거운 아픔을 주심은/이는 정녕 극락의 여신인가 -(정토의 꽃) 중 ‘그리움’에서

불구의 몸을 덮고 낸 시집은 모두 열 권. 서정적이지만 했던 그의 시세계는 어느덧 부처님을 향하고 있었다. 시와 불법은 그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힘의 샘이며 삶을 지탱해 해 주는 버팀목이다.

20여년전 아내의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덩그러니 남은 어린 두 아들과 병마.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오직 시만을 생

각하고 시만을 토해냈다.

그러던 87년, 산골소녀 육진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장신마비 장애아 육진이를 위해 성치않은 몸을 끌고 전북 고창까지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산골소녀 육진이 시집》을 내주었다. 장애인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전북 이리의 장애자 채해주씨(36), 재소자였던 김중호씨(43), 병인 문학청년이었던 김진택씨(38), 압으로 그림을 그리고 타자를 쳐서 시를 쓰는 함마순씨(44), 근육질환장애자 정인순씨(44), 뇌성마비 장애자 최명숙씨(34) 등 20여명의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았다.

자신도 온전치 못한 시인이 돌보기엔 벅찬 사람들. 하지만 오히려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용기를 얻었다. 열심히 불법을 정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려 애썼다. 이들을 위해 90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중광 수안 설봉 스님과 내로라 하는 예인들의 작품을 내놓고 ‘람승만 바라밀 시화전’을 열기까지 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알았다. 그렇게 갈구했던 정토의 땅, 그곳은 바로 여기였다. 부처님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땅굴던 자신의 마음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시를 토해내며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진정한 자유였다.

람승만의 시세계가 인간존중과 문화사상에 천착하고 있음은 바로 그의 끈질긴 생명력에 있는지도 모른다. 시 곳곳에서 좌절과 삶의 여린 가락이 마주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대개 끈질긴 생명력과 처절한 의지로 수용된다. 그리고 그 바탕엔 불교사상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고통받는 중생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피안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람승만의 시가 갖는 미학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전에 살던 ‘서천암(西泉庵)’이라 부르던 집에



▷조인애 씨에 있는 시화·병풍들.

서 맞닿은 은행대들을 받아 마련한 13평의 세 보금자리로 옮기면서 ‘동림사(東林寺)’라 이름짓고 부처님도 모셔 놓았다. 동림사라 이름 지은 까닭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는 수풀처럼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다.

람승만은 말한다. “시 한 권을 쓰면 10년은 더 살고, 시 한 권을 세상에 발표하면 30년은 더 살며, 시집 한 권 묶어내면 3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그는 오히려 살기를 즐긴다. 죽음과 맞부딪어 눈물로 싸운 시, 그에게서 시는 곧 눈물이고 눈물은 곧 시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살고 싶단다.

그는 지금 합장조차 할 수 없다. 왼 손이 모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한다. 물론 조식예불도 빠뜨리지 않고, 람승만의 부처님을 향한 마음엔 정신생명의 부활의지가 곁들여진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부자유 자유인이다. 시인이란 본래 이래야 된다고, 불제자는 본래 이래야 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시작 40년 동안 펴낸 12권의 시집들.



▷90년 포항에 사는 전신마비 장애인 이상열 시인(52)을 찾아가 위로금을 전했다.

취재수첩

‘장애인돕기 바라밀전’ 잇단 실패

지난 90년 장애자와 재소자들과 속삭을 같이 하면서 준비했던 ‘장애자·재소자돕기 기금이런 람승만 바라밀전’은 5백여 만원의 빛과 상처만 안은 채 끝났다. 96년 두 번째 연 장애인 돕기 람승만 바라밀전 역시 실패. 두 번의 실패 끝에 남은 것은 성령스님의 불경병중 등 시서화 90여점을 합해 1백50여점의 작품들. 이 작품들은 현재 람승만의 집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81년 세 번째 시집 《우수제(雨水祭)》를 냈을 때만 해도 역경을 덮고 일어난 시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각계의 도움으로 그러저러 생활을 이어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지면서 어려운 생활은 더욱 궁핍한 처지가 되었다. 신경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 정(33)과 오랫동안 간염을 앓고 있는 차남 효정씨(26)가 경제 능력이 없어 예년보다 더욱 슬프다는 울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람승만 시인은 “보관하고 있는 작품이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텐데...”라며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 연락처 (032)875-2878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신성과 권위 상징

용은 상상의 동물로 몸은 뱀과 비슷하데 날개와 물이 달렸고 발이 4개라고 한다. 깊은 못이나 바다속에 살며 공중에 올라가 풍운의 조화를 부린다.



▷관음사 벽화 해수관음상. 조선시대.

용은 불교의 팔부중(八寶衆)의 하나로 수용되어 호법불교와 어울려 불법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장으로 부각되어 호법룡이자 호국룡으로 믿어져 왔다. 풍양에서는 용을 신비한 영물로 여겨 최고의 신성과 권위를 상징하게 되어 왕을 나타냈다. 이집트 시리아 유대인과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용은 죽음이나 죄악과 관계가 깊은 괴물로 나올 때가 많고 가뭄이나 서리 등으로 피해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원쪽 그림은 대나무가 있는 바닷가에 백의관음보살이 여의주를 띄우는 용을 타고 가는데 좌우에 해상 용왕과 남순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환웃을 입고 두건을 쓴 비너스(천사)가 여의주를 문 용을 타고, 주위에 어린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두 그림의 구도가 비슷한 점이 이채롭다.



▷티에폴로작 비너스의 승리 1762~1765년. 프리에미술관 소장.